

市, 일자리 창출 28% 늘리고…道, 해양수산 분야 72% 증액

광주시·전남도 내년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광주시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고, 전남도는 첫 7조원 예산시대를 맞았다. 광주시는 일자리에 예산을 집중하고, 전남은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등을 중심으로 내년 살림을 꾸렸다.

◇광주시 일자리 집중, 광주형 일자리 반영=광주시의 내년 예산 특징은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데 살림이 집중됐고,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합작 광주 공장 건설을 위해 590억원을 서둘러 반영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7%(5738억원) 늘어난 5조8777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4조1438억원, 공기업과 특별회계는 9439억원 등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예산이 늘고 국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광주시도 예산 증가 혜택을 봤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38억원(5.3%) 증액된 1조8706억원으로 편성됐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548억원(21.1%) 늘어난 2조6110억원이 반영됐다.

시정의 핵심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6547억원과 비교해 1810억원(27.6%) 증액된 8357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10만개 창출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이며, 지역의 어려운 경기 사정을 감안해 각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예산이 집중됐다.

특히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590억원을 반영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예산(2조108억원)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고 문화관광 3239억원(28.6%), 경제 5208억원(22.7%)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 환경보호 3657억원(12.4%), 수송 및 교통 4840억원(11.5%), 교육 3468억원(7.6%) 예산은

‘광주형 일자리’ 590억 반영 市 사회복지·보건 첫 2조 돌파 道 서민생활·복지 2조2344억

소폭 증가했고, 행정수행 경비인 일반공공행정은 6202억원(2.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아졌다.

내년 국비 지원이 늘면서 광주시의 채무도 안정화 국선을 그리게 됐다. 광주시 채무는 내년도 8850억원으로 2015년 9754억원(채무비율 21.7%) 대비 904억원 감소하면서 광역단체 최저 수준에 근접한 비율(15.7%)을 기록했다.

신규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289억원,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 11억원, 광주 순정역 편의시설 확충 3억원, 빔고를 주민안전체협과 건립 105억원, 광주 상징 역사적 조형물 설치 10억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4억원 등이 있다.

◇전남도, 농림서 해양수산으로 이동=사상 첫 7조원을 돌파한 전남도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 기반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57억원(7.5%)이 증액된 2246억원을,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215억원(8.8%)이 증가한 2665억원을 반영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에는 2321억원(10.8%)이 늘어난 2조2344억원이 편성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2022억원이,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는 6099억원이,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와 환경조성 분야에는 각 4469억원과 448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농도 전남’에서 ‘해도 전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올해

■2019년도 광주시 분야별 예산안

〈단위:억원〉	
분야	예산안
일반공공행정	6201
공공질서 및 안전	693
교육	3467
문화 및 관광	3238
환경보호	3656
사회복지	1조9174
보건	934
농림해양수산	507
산업·중소기업	2421
수송 및 교통	4839
국토 및 지역개발	2205
과학기술	73
예비비	150
기타	3311

■2019년도 전남도 분야별 예산안

〈단위:억원〉	
분야	예산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224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1조2635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2655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2조2344
교육여건 개선	2022
SOC 확충 등 지역개발	6099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4469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4480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8621

(1조1483억원)보다 1152억원(10%) 증액된 1조263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해양수산 예산이 크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올해 1936억원에 불과했던 해양수산분야 예산이 내년엔 72.3%(1399억원) 늘어난 3335억원이 편성됐다. 농림분야에서 247억원을 줄여 해양수산 예산을 늘린 셈이다.

해양수산분야 주요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어촌뉴딜300(851억원), 노후 어업지



GP 철거현장 찾은 육참총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12일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GP를 방문해 굴착기로 철거하는 현장을 둘러보며 군사분야 합의 이행과제를 현장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선 대체 건조 사업(67억원)을 비롯해 어촌종합개발(300억원), 가고 싶은 섬 바꾸기(5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99억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53억원) 등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박정국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아세안·APEC 정상외교

5박 6일 일정 오늘 출국 푸틴·시진핑 등 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 지지 확보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5박 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운영위를 소집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계획이다.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한다. 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홍영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잘될 것…기회 놓치면 안돼” 민주 원내대표 취임 6개월 간담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잘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막판 타결하기 위해 비공식 회동을 했다. 현대차 완성차공장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 오는 15일 이내에는 현대차와의 협상이 타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

당에서 취임 6개월 기념 기자회견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여야정 합의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라고 밝히고 “지나해 환노위원장 시절부터 노사상생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모델을 강조해왔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는 즉시 야당과 협의회 국가예산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기 6개월을 맞이한 소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다.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

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고위당정청 문화가 정착됐고 무엇보다 상임위 단위의 당정청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불 때 당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청와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당에 던져주고 당이 그걸 뒷바라지 하는 일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하며 “운영위를 소집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후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대만/동남아

일본

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가가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여행#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

상해/장가계

1,2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식이조여행

대만

639,900원~

대만/지우펀/야류 3일,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금,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

#먹거리,볼거리가득

방콕

867,000원~

방콕/파타야 5일,6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

#코끼리트래킹 #발마사지 #다이나미 여행지

다낭

97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투본강투어 #후에전통가

기타큐슈

59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출발 2박4일

#지족은천 #캐널시티

오사카

920,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일요일 3박 4일

#일본관광광업 #다양한 특식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